

대학에서의 수업활동 효율화를 위한 수업방안

이칭찬 |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사실 불과 십수 년 전의 대학교수라면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대단한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가르치는 일보다는 창조적인,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여 자신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바랐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르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학생들의 강의 평판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대학이 오늘날처럼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신경 쓴 교수들도 많지 않았다. 입학생 수가 모자라 대학 교수들이 학생 입학에 독려하러 다녀야 하고, 일부 이기는 하지만 “잡상인과 대학교수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은 고등학교가 생겨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어떻게 하든지 튀는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고, 학생을 수요자나 고객같이 대해야 한다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학교수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고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이제까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도 해보아야 하겠다.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 대학의 교수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준비해 왔으며, 실제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 단순히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버텨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다.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고 알찬 사람들인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물음에 “아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세상은 예전처럼 그렇게 허술한 내력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사방에서 영악한 지적이 붓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고, 그러한 평판을 숨길 수도 없게 되었다. 자고 일어나면 자신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가 사방에서 튀어나온다. 총장과의 대화라는 인터넷 창에는 매일 매일 아무개 교수가 어떻다는 비방이 난무하게 되었고, 자신의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기회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남의 평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부끄러움 없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가르친다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제도권 내의 학교나 대학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다. 오히려 사회의 각 영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명 강의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기발하고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명강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한다. 한 때는 유명 학원 강사가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고, 조용히 주부로 생활해 오던 사람들이 여러 부분의 명강

사로 마스크의 집중조명을 받기도 했다. 일부 대기업의 사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명 강사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거머쥐고 있다. 심지어 남들과 조금은 다른 희귀성 때문에 유명 강사 노릇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탈북자들을 비롯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요즘은 새로운 대학입시의 방식 때문에 논술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몇몇 학원의 논술 강사들은 특특히 유명세를 치르기도 한다. 하기가 선생님이 되겠다고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수만 명의 예비 교사들이 노랑진 일대의 임용고시 준비학원에 다니며, 명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 또 다른 경쟁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전문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성공도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의 준비를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하는 방법, 유머의 준비, 심지어는 입는 옷의 색깔배합까지, 전문적인 교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을 준비한다. 문제는 이들의 이러한 준비를 그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한다는 데 있다. 전문적 기술과 식견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교사 또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교사 예비생들이 과연 그들보다 더 전문적인 부분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자신 있게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II. 대학에서의 수업

현대 사회가 발전하고 조직이 커질수록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보존이나 전달 방식도 바뀌고 있다. 또한 프리젠테이션 시대라고 할 만큼 무수한 정보 속에서 자료를 수집 정리 하여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기술이 나날이 발

전하고 있으며,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프리젠테이션 기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에서의 수업도 예외가 아니다. 나날이 변하는 학문의 세계 속에서 교수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든 교수가 공감하고 있다.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전달할 만한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매체 사용 능력 부족,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이 습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체 사용력, 자신감, 전달력도 기술이다. 기술은 익힘으로써 능숙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수의 관점에서 프리젠테이션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매체 활용의 기법, 특별히 요즘 들어 누구나 활용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매체의 실무 기술을 익히면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유능한 프리젠테이터로서 자리매김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프리젠테이션이란 청중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인 행위로서 상대방을 설득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실제 행위의 과정에서는 전달매체나 그 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바라는 방향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이해시키는 행위로서, 필요에 의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지식, 기술, 태도 등에 관하여 어떤 기대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한정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프리젠테이션의 경우 실제 프리젠테이터로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몇 가지 잘못된 전제가 있다. 따라서 프리젠테이터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이러한 잘못된 전제를 생각지 말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1. 언변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프리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다.

언변이 뛰어나다고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화술은 프리젠테이션의 진행이 잘 되기 위해서 의 윤희유가 될 수는 있어도 프리젠테이션 자체를 진행하는 원동력은 되지 못한다.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핵심을 이야기 하고 시각자료를 더 강조하면 프리젠테이션의 효과적·효율적 진행을 도울 수 있다.

2. 프리젠테이션 실력은 나이순이 아니다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프리젠테이션의 경험에 따라 실력의 차이가 난다. 새로운 매체나 기술이 등장하면서 더욱 다양해지는 프리젠테이션의 효과는 그 즉시 익혀 프리젠테이션 및 모든 일에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리젠테이션 실력은 얼마 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실천하며 노력을 했는가에 좌우되는 것이지 나이순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3. 감성적인 프리젠테이션도 필요하다

정확한 통계와 숫자, 자료의 제시 등으로 매우 큰 신뢰감을 주는 이성적 프리젠테이션도 좋지만 정서에 호소하고 공감을 유발하는 감성을 가미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청중의 심리를 알고 청중의 오감을 자극하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작하여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프리젠테이션이 되었다면 이를 ‘감성적인 프리젠테이션’이라 할 수 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조화시킨 프리젠테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프리젠테이션은 여러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대학 강의 및 수업의 58%가 빔 프로젝터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빔 프로젝터를 이용한 수업은 주로 프리젠테이션용 소프트웨어인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교수가 미리 작성한 교안을 프로젝터

를 통해 보여주면서 강의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내용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자신들의 아이디어 및 과제,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등 자신의 의견 및 생각을 표현하는 데 프리젠테이션이 사용된다. 즉, 프리젠테이션은 일정한 방식, 일정한 장소가 아닌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Ⅲ. 프리젠테이션 진행 과정

주위를 돌아보면 프리젠테이션에 뛰어난 프리젠테이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리젠테이터들도 처음부터 프리젠테이션에 뛰어났던 것은 아니다. 무수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노력을 통해 그 대가를 얻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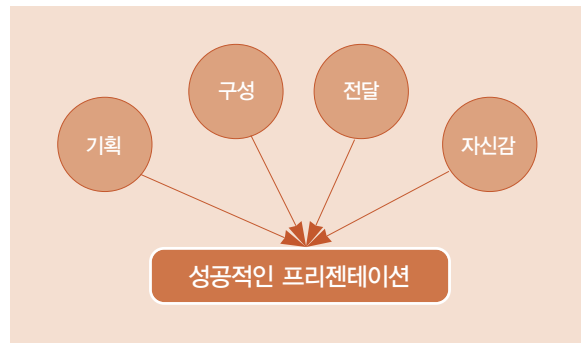


그림 1. 프리젠테이션의 구성 요소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는 네 가지 구성요소를 빼놓을 수 없다. 기획, 구성(디자인), 전달(표현), 프레젠테이터의 자신감이 그것이다. ‘기획’이란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구성(디자인)’이란 기획 단계에서 결정된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슬라이드를 디자인 및 제작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달(표현)’은 기획과 구성(디자인)이 완성된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청중에게 직접 말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기획, 구성, 전달의 세 가지가 갖추어졌어도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리젠테이션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전준비를 기반으로 프리젠테이션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어느 상황에서도, 청중들 앞에 서게 되면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위의 4가지 구성요소를 토대로 프리젠테이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1) 프리젠테이션 진행 과정



일반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기획, 준비, 실행, 평가 단계로 나뉜다. 각 단계는 탄력적으로 운영되므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할 때마다 각 단계를 이해하고 실정에 맞게 실무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프리젠테이션의 시작은 기획이다. 마치 집을 짓기 전의 설계와 마찬가지로 기획이 잘되어야 프리젠테이션의 전체적인 진행이 흔들리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프리젠테이션 기획과정은 프리젠테이션의 핵심 주제와 목표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핵심 주제와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하는 세부 콘텐츠를 작성하게 된다.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효율적인 준비를 위해 '프리젠테이션 준비 Check List'를 마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 기재하면 도움이 된다.

프리젠테이션 원고를 세부적으로 목록화 했으면 청중의 특성은 무엇인지, 요점은 무엇인지, 어느 곳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등 프리젠테이션의 전반적인 상황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프리젠테이션에서 실패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2) 효과적인 전달 매체 선정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장소와 준비된 장비, 그리고 청중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 각 내용과 상황 분석을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증거 자료 및 시각 자료 등을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여 청중이 목표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프리젠테이션 디자인 과정에서 주의 할 점〉

- 철저한 설계도를 그린다.
- 내용은 최소화!
- 시각 정보를 적극 활용하라!
- 여백의 미를 살리자
- 배경색은 어둡게!

IV. 맺음 말

더 이상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특별히 대학에서의 교수의 역할이 자신의 영역에서의 연구 역량을 나타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게 되었다. 가르치는 일과, 연구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만능인으로서의 대학 교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특별히 가르치는 일은 직접적으로 매일의 시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작업이다.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 내가 행한 만큼의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달능력은 모자란다는 말을 도처에서 듣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결국 시간을 들여 전문적

인 방법을 숙지할 수밖에 없다. 요즈음은 각 대학에서 교수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구체적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Faculty Development를 비롯한 교수-학습 개발센터의 활용, 심지어 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전문 기관들의 노력들도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다양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아니면 나만이 이 분야의 최고라는 자부심을 자랑하기 보다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교수법의 활용을 생각해 보아야할 때이다.

필 · 자 · 소 · 개

이칭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교에서 교육과정 및 수업이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교육부 장관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사론」, 「교육과정」 등 20여 편이 있으며, 200여 편의 논문이 있다.